

# 대학생의 논증 문단 작성 실태와 지도 방안

김옥화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Kim, Okhwa. 2005. *The Problems of the Paragraphs in the Argumentative Essays Written by University Students and Teaching Programs to Improve Their Writing*.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3(1), 19-46.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aragraphs of the argumentative essays written by university students and to suggest the teaching programs to develop their paragraph writing skills. The analysis on the paragraphs of students shows that they frequently violate the general principles to develop paragraph: unity, coherence, emphasis. For example, they select supporting sentences which are not related with the topic sentence. Sometimes they make errors in using transition phrases and arranging the sentences. And they show unskillfulness to write topic sentence. To solve these problems, we suggest two kinds of teaching program. One is to teach them principles and methods of writing paragraphs. To do this, it is effective to teach them the conditions for the good paragraphs and to show them the model paragraphs, and to induce them to solve various exercise questions. The other is to have them to practice writing paragraphs, which is divided into 3 steps: planning, writing, evaluating. When we carry out this program, we emphasize on making paragraph outline for the quick and accurate writing.

주제어(Key Words): paragraph, argumentative essay, unity, coherence, emphasis, paragraph outline

## 1. 문제제기

우리 사회가 지식 기반 정보화 사회로 급속히 이행해 감에 따라 각 개인이 날마다 접하는 정보의 양도 늘어났고, 그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할 기회 또한 늘어났다. 특히 대부분의 정보를 주고받는 인터넷상에서는 거의 모든 의사소통이 글쓰기로 이루어지고 있어, 글쓰기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다.<sup>1)</sup>

이러한 추세 속에서 대학생의 글쓰기 교육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증가해 왔다. 지금까지 대학생의 글쓰기에 대한 연구는 학생 글의 오류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지도 방안 제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 가운데 문장 차원의 오류에 대한 논의로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연구실 편(1985), 김동언(1992), 원진숙(1999) 등을 들 수 있다.<sup>2)</sup> 이들 논의에서는 비문의 유형을 나눈 다음, 각 유형에 해당되는 예문과 각 예문의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학생 글 전체를 분석한 논의로는 김주필(1990), 김영옥(1996) 등이 있다. 두 논문 모두 한 편의 글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이를 토대로 글쓰기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려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주필(1990)의 경우 ‘문장 차원의 오류 지적’과 같은 하위 단계의 글쓰기 교육보다는 ‘주제 선정, 제재의 배열, 문단의 구성 및 연결’과 같은 상위 단계의 글쓰기 교육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김영옥(1996)은 오류 분석과 이에 대한 교정이 글쓰기 교육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일깨워 준 논의이다.

이러한 연구 경향 속에서 본고는 학생 글의 ‘문단’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것은 필자가 지난 1년간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글쓰기를 지도한 결과, 학생들 중 상당수가 기초적인 ‘문단 쓰기’에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고, 각자의 사고를 주고받는 가운데 학문적 발전을 이루어가야 하는 대학에서 원활한 글쓰기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본고는 바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학생들이 작성한 논증문에 나타난 ‘문단 작성’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이제 글쓰기 능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새삼스럽게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익섭(1999), 원진숙(2003), 임재춘(2003) 등을 포함한 다수의 논저들에서 글쓰기 능력의 중요성과 필요성, 이와 관련된 사회적 요구,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글쓰기 교육의 필요성 등이 강조된 바 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필요성과 관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국민의 글쓰기 능력이 그리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교육의 장에서 더 많은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원진숙(1999)의 경우 문장 차원의 분석 외에, 학생들의 글쓰기 과정과 쓰기 전략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글쓰기 전략과 글쓰기 교육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앞의 두 논의와 약간 성격을 달리한다. 한편, 대학생의 문장을 분석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허철구(1999)에서도 비문의 종류와 유형별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논증’이란 자신을 둘러싼 어떤 문제에 대하여 자기 나름의 견해나 주장을 내세우고, 이를 합리적으로 뒷받침하는 서술 방식이다. 논증문에서 필자는 자신을 둘러싼 상황 중 일부를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신념이나 의견을 가상의 독자가 받아들일도록 설득한다.<sup>3)</sup> 그리하여 논증문의 각 문단은 필자의 주장과 근거를 중심으로 구성되고, 다른 글쓰기 방식에 비해 문단의 구성 요소와 문단 전개 양상이 보다 분명하게 파악되는 경향이 있다.

필자가 분석 대상으로 삼은 글은 2004년 1, 2학기 동안 대학교 신입생들이 작성한 총 94편의 논증문이다. 1학기에는 총 48명의 학생들이 ‘스크린쿼터제 존폐 여부’와 ‘통신언어 사용’에 대한 찬반 입장을 담은 논증문을 작성하였고, 2학기에는 총 46명의 학생들이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논증문을 작성하였다.

이들 논증문을 내용 면에서 살펴보면 정보의 정확성과 다양성, 추론의 타당성 면에서는 대체로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문단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문단 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문단의 화제가 불분명한 것으로부터, 문단의 중심 생각과 관련이 없는 문장이 들어 있는 경우, 문장과 문장의 연결이 어색한 경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볼 때 문단 차원에서 학생들의 글을 분석하고, 문제를 진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판단된다.<sup>4)</sup>

이에 따라 2장에서는 국·내외 작문 서적에 제시된 문단의 정의와 문단 작성의 원리를 간략하게 살펴본 다음, 이러한 원리가 지켜지지 않은 사례를 그 유형별로 제시하면서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3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지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4장에서는 본

3) 논증 텍스트의 성격에 대한 이러한 서술은 원진숙(1995a:168-195)를 참고한 것이다. 이 논의에서는 논증 텍스트를 텍스트 생산자와 수용자 간의 상호작용적 관계에 기초한 ‘문제-해결 구조’로 이해하고, ‘상황(situation), 문제(problem), 해결(solution), 평가(evaluation)’와 같은 구조적 단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4) 기존 논의 중에서는 원진숙(1995b)가 대학생 논증문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논술 텍스트의 구성 원리를 ‘결속성’으로 파악하여, 논증문의 결속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술문 평가 항목을 내용, 구성, 표현 영역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원진숙(1995b)가 글 전체 차원에서 논증문에 접근한 것이라면, 본고는 ‘문단’ 차원에서 논증문에 접근하려는 시도이다. 물론 원진숙(1995b)에서도 구성 면의 결속성 저해 요인으로 ‘단락 의식 결여’ 항목을 제시하고 있지만, 주로 문단 나누기 오류 사례를 다루고 있어 본고의 2장에서 다루는 것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

론의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한다.

## 2. 논증문 문단에 나타난 작문법상의 문제

문단이란 글 전체의 주제와 관련된 하나의 중심 생각(main idea)를 발전시키는 문장들로 구성된 기본적인 글쓰기 단위이다. 일반적으로 문단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문단의 중심 생각을 진술하는 화제문(topic sentence)과 그러한 화제문을 발전시켜 나가는 뒷받침 문장들(supporting sentences), 그리고 문단이 종결됨을 알리면서 독자에게 중요한 핵심을 전달하는 맺음 문장(concluding sentence)이 그것이다.<sup>5)</sup>

이러한 세 가지 구성 요소 외에도, 좋은 문단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통일성(unity)’과 ‘긴밀성(coherence)’을 갖추어야 한다. 통일성이란 하나의 문단에서는 오직 하나의 중심 생각만을 다루어야 하며, 중심 생각이 화제문으로 진술되면 나머지 모든 뒷받침 문장들은 그러한 중심 생각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뒷받침 문장들 중 어느 하나라도 화제 이외의 것에 대해 언급해서는 안 된다.

다음으로 긴밀성이란 문장과 문장의 연결이 논리적이고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것이다. 즉, 문장들 간에 어떠한 갑작스러운 비약도 있어서는 안 되며, 한 문장에서 다음 문장으로 부드럽게 흘러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긴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핵심 어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선행 어구를 받는 대명사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문장들을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배열하고, 문장들 간의 연결을 자연스럽게 하는 이행 어구(transition phrases)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두 가지 조건 이외에 ‘강조성(emphasis)’의 원리가 있다. 강조성이란 문단의 중심 내용이 두드러지게 표출되어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단의 강조성을 유지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적 강조’이다. 이는 화제에 대한 충분한 예시와 설명, 또는 논증을 통해 화제에 대한 충분한 전개를 함으로써 글의 요지가 독자에게 충분히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화제를 문단의 첫머리나 끝자리에 놓음으로써 독자의 주의를 끌 수도 있고, 표현상의

---

5) 이는 Oshima & Hogue(1999:16)을 따른 것이다. 캐슬린E. 설리번 지음/최현섭·위호정 역(2000:52-53)에서는 문단의 구성 요소를 ‘서론(introduction), 본문 혹은 논의(discussion), 결론(conclusion)’으로 제시하였는데, 각 부분의 역할을 살펴보면 본고에서 제시한 구조와 큰 차이가 없다.

반복과 강조를 통해 서술 내용을 인상 깊게 만들 수도 있다.<sup>6)</sup>

이제, 이상에서 소개한 세 가지 문단 전개 원리에 비추어 학생들이 작성한 문단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은 논증문의 본론부에 해당되는 ‘일반 문단(전개 문단, 논의 문단)’에 한정하고자 한다. ‘서론 문단’이나 ‘결론 문단’과 같은 ‘특수 문단’에 나타나는 문제는 글 전체의 문제를 지적할 때 언급하는 것이 더 적절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예문의 문장은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교정한 것이며, 예문의 밑줄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자가 임의로 그은 것임을 밝혀 둔다.

## 2.1. 문단의 통일성과 관련된 문제

문단의 통일성이 문제되는 것은 화제문과 뒷받침 문장이 내용 면에서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화제문과 관련이 없는 뒷받침 문장이 들어 있거나 화제문 또는 맺음 문장이 잘못 작성된 경우에 통일성이 문제되는 것이다. 이밖에 한 문단 안에 두 개 이상의 화제가 들어 있는 경우에도 통일성이 유지되기 어렵다. 이러한 오류를 보이는 문단들을 유형별로 제시하고, 통일성과 관련된 각 문단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 2.1.1. 화제문과 관련이 없는 뒷받침 문장이 있는 경우

문단의 통일성과 관련된 첫 번째 문제로는 화제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문장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논증문의 경우 대체로 하나의 논거나 주장을 화제문으로 작성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문장을 보충하여 문단을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다음에 제시된 (1)~(4)의 경우 화제문과 관련이 없는 문장들로 인해 문단의 통일성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1) 마지막 반박의 근거로 이미 한국 영화가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국 영화는 일본 등에 수출되면서 흥행에 성공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국제 사회에서도 그 위치를 어느 정

6) ‘강조성’에 대한 설명은 서정수(1996:261-270), 정달영(1997:33-34)을 정리한 것이다. 정달영(1997:34)의 경우, 국외 논저들에 비해 국내 논저들에서 ‘강조성’이 소홀히 여겨져 왔음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도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우후죽순처럼 개봉되는 이·삼류작들은 한국 영화 산업의 역량을 소모시키고 있다. 이것은 경쟁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2) 스크린 쿼터제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내세우는 첫 번째 논거는 스크린 쿼터제가 할리우드 영화의 독점을 저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스크린 쿼터제가 오히려 영화산업의 독과점 현상을 유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내 영화의 경우 작년 한 해 실미도와, 태극기를 휘날리며가 영화계를 휩쓰는 동안 비교적 흥행성이 떨어지는 다른 예술 영화들은 고사 위기를 겪어야 했다. 또한 외국 영화의 경우에도 여전히 제3세계, 유럽 등지의 세계적인 예술 영화는 할리우드 영화에 밀려 제대로 상영되지도 못했다. 국산영화 의무상영일수에 맞추기 위해 흥행이 보증된 한국 영화를 상영하고 그 외에는 모두 할리우드 영화로 채우는 식이었다. 이러한 점을 보면 단지 국산 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정해 놓는다고 독점이 방지되고 문화적 다양성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국산 영화를 무차별적으로 보호하려 들 것이 아니라 애니메이션 또는 기타 예술영화 등을 활성화시킬 다른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3) 기술적인 관점에서 몇 가지 문제가 지적된다. 가장 먼저 언급할 수 있는 것은 부작용의 폐해이다. 복제 동물에서 주로 나타나는, 출산장애, 기형동물 출산, 급사증후군, 돌연변이 등의 문제점이 복제배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인간 복제의 가능성을 들 수 있다. 복제된 배아를 여성의 자궁에 착상시키기만 하면, 복제 인간을 만들어 낸다는 것도 불가능하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이제 막 초기 단계에 들어선 배아복제 연구가 난치병 치료에 직접적으로 응용될 수 있는지, 응용되기까지는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4) 지금 시대적 흐름은 세계화에 따른 문화적 다양성의 추구라고 하겠다. 언어 공용화에 의해 나타나게 될 언어 획일화의 모습은 이런 시대적 흐름과도 어긋난다. 또한 민족 정체성의 상실 역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언어란 우리의 문화와 사고를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새로운 언어는 우리의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영어는 외국어일 뿐 공용어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공용화를 주장하기 전에 10년이 넘는 영어 교육이 왜 효과를 나타나지 못 하는지부터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위의 (1) 문단에서 밑줄 친 ‘하지만~문제다’ 부분은 한국영화가 어느 정도 경쟁력을 확보했으므로 스크린 쿼터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이 문단의 화제와 관련이 없다. 그리고 (2)의 밑줄 친 부분 역시 스크린 쿼터제로 인한 독과점 현상과는 관련이 없다. 다음으로 (3) 문단의 화제는 ‘기술적인 관점에서 본 배아 복제의 문제점’인데, 밑줄 친 문장은 배아 복제 연구가 난치병 치료에 쓰이는 것이 매우 요원한 일이라고 말함으로써 화제에서 벗어났다. 끝으로, (4)에서는 영어공용화를 실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말하다가, 갑자기 마지막 문장에서 영어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 통일성을 깨뜨리고 있다.

### 2.1.2. 화제문이 뒷받침 문장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상에서 살펴본 것이 화제문과 거리가 먼 뒷받침 문장의 문제라면, 이번엔 제시될 예들은 화제문이 뒷받침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서 통일성이 문제되는 경우이다. 우선, 문단 (5)를 보면 밑줄 친 부분을 화제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후 내용을 살펴보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측면’에 대한 서술이라기보다는, ‘요금과 수도권 거주자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측면’에 대한 서술이다. 따라서 이 경우 화제문이 뒷받침 문장들의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했다고 볼 수 없다.

(5) 폭넓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도 문제를 야기하였다. 서울시의 요금체계 개편은 당연히 그와 인접한 수도권의 시민들도 직접적으로 영향 받게 된다. 그러나 지난 개편에서는 서울 시민들의 의견조차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아 수도권 시민들도 피해를 받게 되었다. 개편 2개월 후 경기도와 인천의 요금이 서울시의 요금 수준으로 대폭 올랐으나, 상호간 연계는 전혀 없어 수도권 시민들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 서울 시민들도 바뀐 노선들과 번호로 굳이 같아 탈 필요가 없었던 사람들이 같아 타느라 이동시간이 더 길어졌다.

(6) 다른 문제점은 운동선수들에게 군 면제가 하나의 목표가 된다는 것이다. 해외에서 활동하던 선수가 아시안 게임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딴 일이 있었다. 물론 그는 군복무를 면제받았지만, 이후로 국제대회에서 다시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운동선수들에게 군복무를 면제해주는 이유는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군복무 자체가 하나의 목적이 되

었다.

(7) 이러한 통신어의 사용으로 인하여 한글, 특히 한글의 어휘 부문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요즘은 통신어가 온라인 채팅을 벗어나 실생활에서도 쓰이고 있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을 제외한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들의 대화를 살펴보면 통신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초등학생들은 그 누구보다도 통신어 사용에 익숙해져 있어서 받아쓰기 등의 국어 실력을 알아보면 너무나 형편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추세로 나아가면 언젠가 국어사전에는 지금의 표준어가 사라지게 되고 그 자리에는 통신어가 오게 되는 끔찍한 사태가 벌어질 지도 모른다.

마찬가지로 (6)의 경우에도 첫 문장을 화제문으로 보았을 때, 이것과 나머지 문장들이 내용 면에서 일치하지 않는다.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제외하면 나머지 문장들은 운동선수들에게 군 면제를 해 주는 것이 우리나라 스포츠의 발전에 궁극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결국 첫 번째 문장이 화제문으로서 뒷받침 문장들을 포괄한다고 보기 어렵다.

끝으로, (7)에서도 밑줄 친 화제문과 그 밖의 문장들이 내용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첫 번째 문장이 화제문이라면 이후 문장들은 통신어 사용으로 인해 한글의 어휘 부분이 위축된 사례를 서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지로는 통신어가 실생활에서 무분별하게 많이 쓰인다는 서술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화제문과 뒷받침 문장 사이에 통일성이 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뒷받침 문장들의 내용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화제문을 바꾸거나, 화제문에 부합되는 뒷받침 문장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 2.1.3. 한 문단 속에 둘 이상의 화제가 들어 있는 경우

다음으로, 한 문단 속에 중심 생각, 즉 화제가 둘 이상인 경우도 문제가 된다. 문단 (8)을 보면 밑줄 친 문장 앞까지는 청계고가 철거와 교통 대란의 문제를 연관지어 언급하고 있으나, 밑줄 친 문장에서 갑자기 ‘교통 대란 문제’에서 ‘환경 문제’로 화제가 옮겨져서 통일성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8) 또한 청계고가를 철거하면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며 공사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노후화된 청계고가를 수리하기 위해서

어차피 일정 교통량은 통제되었을 것이다. 또 공사를 진행하면서 서울시는 교통대란에 대비하여 우회도로를 이용할 것을 권장하였고, 실제로 큰 문제없이 실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가도로를 철거하면 배기가스의 정체현상이 줄어드는 등의 대기환경이 개선되는 긍정적인 결과도 낳는다.

(9) 두 번째로 환경오염의 측면에서 말하여 보자. 갯벌은 ‘바다의 정화조’라고 불릴 만큼 오염된 바다를 정화시킨다. 어느 연구에 따르면 갯벌은 약 10만 명의 오폐수를 정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런 능력을 가진 갯벌을 개발함에 따라 발생할 환경오염은 엄청나다. 사실 10만 명의 폐수를 정화하는데 필요한 정수장을 만들고 폐수를 정화시키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고 한다. 경제적인 측면과도 결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의 환경오염을 더 이상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문단 (9)의 경우에도 갯벌을 개발할 경우 환경오염이 심각해진다는 것이 화제인데, 마지막 두 문장에서 갯벌 개발로 인한 기회비용 문제와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까지 다루고 있어 ‘단일한’ 화제만을 다뤄야 한다는 통일성을 위배했다고 할 수 있다.

#### 2.1.4. 맺음 문장이 잘못 작성된 경우

이밖에도 어떤 경우에는 화제문과 뒷받침문 모두 통일성을 유지하다가, 결어 문장이 부적절하여 통일성을 깨뜨리기도 한다. 다음에 제시된 (10)의 경우, ‘요컨대’로 시작하는 결어 문장을 이전 문장들의 요약으로 보기 어렵다. 앞 문장의 내용을 고려한다면 이 문단의 맺음 문장은 ‘외계어는 개성과 다양성이 중시되는 현대 사회에 잘 맞는다.’ 정도가 적절할 것이다.

(10) 다음으로 통신 용어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외계어의 사용이다. 외계어란 각종 기호들과 특수문자를 조합해 한글 모양을 만들어내어 표현한 글자를 뜻한다. 이런 외계어는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생각대로 문자를 만들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성적이다. 수많은 양의 정보와 물건이 쏟아지고 이제는 거의 인구가 60억에 달해가는 현대 사회에서 자기 자신을 남에게 특색 있게 표출하고 알리는 일은 중요하다. 외계어는 다양성이 중시되는 현재의 추세와도 잘 부합한다. 요컨대, 통신 용어는 현대

사회가 필요에 의해 만들어낸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상에서 필자는 통일성이 없는 문단들을 그 요인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처럼 문단의 통일성이 지켜지지 않다 보니 자연스럽게 문단 나누기가 잘못된 경우가 자주 발견된다. 문단 나누기가 적절하지 않으면 독해에 큰 지장을 주게 되는데, 학생들이 작성한 논증문을 읽다 보면 화제가 바뀌지 않았는데도 문단이 나뉘는가 하면, 화제가 바뀌었는데도 문단이 나뉘지 않기도 한다. 다음의 (11)은 전자에 해당된다.

(11) (P1) 셀레늄은 도대체 무엇인가? 셀레늄은 원소기호 Se로 표시되는 물질의 이름이다. 그 동안은 하나의 원소로만 여겨졌으나 지난 73년 동물에서 항산화 작용을 하는 효소의 필수성분임이 밝혀지면서 새로운 영양소로 떠올랐다.

(P2) 세계보건기구는 이미 셀레늄을 필수영양소로 인정했으며, 결핍 시 면역기능이 저하되고 각종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된다는 연구결과도 여럿 있다.

(P3) 그러나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프랭크 박사의 나라별 셀레늄 섭취량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섭취량은 하루에 40Mg으로 WHO 권장량인 하루 50~200Mg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P4) 셀레늄은 대개 동물의 장기, 어패류, 낙농식품 등에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면 그러한 식품 섭취에 신경 쓰면 될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식품 속 셀레늄 함유량은 그 식품이 재배된 토양에 어느 정도의 셀레늄이 함유되어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게다가 한국영양학회가 발표한 국내 셀레늄 분포 지도에 따르면 국내의 50% 이상이 셀레늄 결핍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위의 (11)에 제시된 (P1)과 (P2)는 모두 ‘셀레늄’이란 영양소를 소개하고 있으므로 굳이 두 개의 문단으로 나누어 서술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P3)과 (P4)의 경우에도 화제를 ‘우리나라 국민들의 셀레늄 섭취 부족과 그 원인’으로 정한다면 하나의 문단으로 묶을 수 있을 것이다.<sup>7)</sup>

한편, 다음에 제시된 (12)~(13)은 한 문단 속에 두 가지 화제(논거)가

---

7) (P3)과 (P4)가 자연스럽게 묶이기 위해서는 (P3)과 (P4)에 적당한 이행 어구를 넣고, (P4)의 마지막 문장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P4)의 마지막 문장은 ‘그런데 문제는 국내의 50% 이상이 셀레늄 결핍 지역이라는 데 있다.’ 정도가 적절할 것이다.

들어 있어 화제가 바뀔 때 문단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경우이다.

(12) 복원공사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우선 노점상인을 비롯한 청계천상인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을 논거로 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거는 먼저 이기적인 발상이라는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생계가 달린 문제일 수 있다. 당연히 여기에는 합당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보다 자신의 경제적 이익이 감소한다고 해서 공사를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못하다. 이는 복원공사가 필요한 다른 근거를 비추어 보았을 때 다분히 특정집단의 이익을 옹호하는 의견이기 때문이다. ㉸ 또한 청계고가를 철거하면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며 공사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노후화된 청계고가를 수리하기위해서 어차피 일정 교통량은 통제되었을 것이다. 또 공사를 진행하면서 서울시는 교통대란에 대비하여 우회도로를 이용할 것을 권장하였고, 실제로 큰 문제없이 실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가도로를 철거하면 배기가스의 정체현상이 줄어드는 등의 대기환경이 개선되는 긍정적인 결과도 낳는다. (㉸ : 문단 나눔 지시)

(13) 우선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살펴보면 대표적인 것으로 이공계로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학비를 전부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제도로 인해 이공계로 갈 생각이 없는 학생들이 이공계로 오지는 않으며 이 장학금도 비교적 유지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공계 학생들의 동기 부여나 실력향상에 기여하지 못한다. 이공계 장학금을 주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실제로 지원해야 할 곳에 돈을 쓰지 않고 돈을 미끼로 학생들만 유치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문제이다. 정작 경제적 능력이 없는 대학원생들이나 조교들에게는 장학금이 매우 제한되어있고 최근에는 그마저도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설상가상으로 대학원생들은 학자금을 대출받기도 갈수록 어려워져서 연구에만 집중해서 국가가 원하는 인재로 거듭나야 할 때 경제사정까지 걱정함으로써 그 효율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 또 과학자나 공학도를 배출하기 위해서 만든 특수목적고, 과학 고등학교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고 양질의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의대나 약대 등 다른 분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다. 인재 육성 차원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3년간 고급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본래 목적과는 다른 곳으로 빠져나간다면 이야말로 유명무실한 정책이 아니겠는가. 최근 들어 이를 막기 위해 특목고 학생이 동일 계열로 진학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준다고는 하지만 이 역시 근본적인 대책

은 되지 않는다. (☼ : 문단 나눔 지시)

(12)의 경우 ‘또한’을 경계로 하여 서로 다른 화제(논거)가 제시되고 있다. 앞부분에서는 생계의 문제를 들어 청계천 복원 공사에 반대하는 노점상 측의 주장을 반박하였고, 뒷부분에서는 공사 기간 중 교통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주장을 반박하였다. 그러므로 화제가 바뀌는 ‘또한’을 경계로 문단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그리고 (13)의 경우에는 실효성 없는 이공계 장려책을 비판하고 있는데 중간의 ‘또’를 전후로 해서 비판의 내용이 달라진다. 즉, 앞부분에서는 학비 지원 체계의 문제를 지적하였고, 뒷부분에서는 타 분야로의 인재 유출을 막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또’로 시작하는 문장 앞에서 문단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끝으로, 논증문에서는 서론 문단과 결론 문단을 본론부 문단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한데, 학생들의 글 중에서 서론과 본론의 경계가 분명치 않은 경우가 자주 발견된다. 또한 글 전체가 하나의 문단으로 되어 있거나, 반대로 문장이 바뀔 때마다 문단을 나누어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은 모두 문단 의식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 2.2. 문단의 긴밀성과 관련된 문제

문단 내에서나 문단 사이에서 이행 어구나 이행 문장, 지시어, 문장 배열 등에 문제가 생기면 문장 간의 연결이 어색해진다. 다시 말해 긴밀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긴밀성이 문제되는 사례들을 그 요인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2.1. 이행 어구와 지시어가 문제되는 경우

문단 속에서 긴밀성을 유지하는 방법에는 지시어, 대명사, 이행 어구, 핵심 단어 반복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행 어구의 사용일 것이다. 그런데 다음의 (14)~(15)에 사용된 이행 어구들은 전·후 문장을 긴밀하게 이어주지 못하고 있다.

(14) 요즘 웰빙 바람이 한창이다. 좀 더 나은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와 더불어 향기요법, 채식 등 갖가지 문화가 유행하고 있다. 향암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셀레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셀레늄에 관해 주목할 필요 또한 있다.

(15) 이렇듯 패스트푸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패스트푸드란 햄버거, 도넛, 닭튀김과 같이 가게에서 간단한 조리를 거쳐 제공되는 음식이다. 소수의 인원으로 손님 주문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미국에서는 1960년부터 보급되기 시작하였고, 한국에는 1970년대에 들어와 지금까지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간편함 때문에 꾸준한 인기를 누려 왔던 패스트푸드가 그 영양성 문제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말았다.

위의 (14)에서는, 마지막 문장의 처음에 오는 ‘그리고’가 적절치 못하다.<sup>8)</sup> 그리고 (15)의 경우에는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이어주는 ‘우선’이라는 단어가 적절하지 못하다. 물론 이 경우에는 패스트푸드가 논란이 되는 이유를 묻은 다음 패스트푸드를 정의한 문장이 곧 바로 나온 점도 문제이지만, 이것이 ‘우선’으로 연결됨으로써 그 연결이 더욱 어색해졌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신,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패스트푸드가 어떤 음식인지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할 것이다.’ 정도의 이행 문장을 넣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다음에 제시된 문단 (16)은 문장 차원의 이행 어구가 누락되어 문장 간 연결이 어색해진 경우이다. 밑줄 친 부분과 앞 문장 간의 긴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 상황에서는 제도적 보호가 오히려 한국 영화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도의 문장이 들어가야 할 것이다.

(16) 현대 산업 사회에서 모든 상품들은 시장 질서를 통해 자유롭게 경쟁한다. 그리고 그러한 경쟁을 통해 저마다 품질이 개선되고 향상된다. 영화도 마찬가지이다. 영화라는 문화가 산업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성장해 나가는 이상, 자유 시장을 통한 경쟁 및 질적 발전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스크린 쿼터라는 보호 제도가 영화 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물론 스크린 쿼터제가 외국의 거대 자본에 맞서 한국 영화가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 영화가 질적, 양적으로 충분한 자생력을 갖춘 지금, 지금과 같은 제도적 보호는 불필요하다. 실제로 한 때 (스크린 쿼터라는 보호의

---

8) 물론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마지막 문단이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앞에 셀레늄에 대한 소개와 중요성이 좀더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들 속에서) 상업적 흥행만을 노린 오락물, 조폭물들이 무수히 제작되었으며, 이들 영화는 한국 영화의 질적 발전에 아무런 기여를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다음으로, 지시어 사용이 부적절하여 긴밀성이 깨지는 경우도 있다. 다음의 (17)이 그 예인데, 여기서 밑줄 친 ‘그러한’이 가리키는 것이 분명치 않아 독자에게 혼란을 줄 소지가 있다. 즉, ‘그러한 이유’가 ‘악습과 여성 차별적 조항들이 존재하는 이유’인지 ‘여성들이 호주제로 고통 받는 이유’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인지 분명치 않다. 따라서 이후에 이어질 내용을 참고하여 그 내용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7) 호주제란 무엇인가. 호주제란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 가족의 유대를 지켜주고 행정상 관리를 편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호주제 속에는 가부장 의식의 악습과 남성에게만 유리한 여성 차별적 조항들이 존재하고 있어 많은 여성들이 호주제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 그러한 이유를 3가지 측면에서 알아보자.

### 2.2.2. 문장 배열이 부적절한 경우

문장 배열에 있어서 긴밀성이 문제되는 경우는, 어떤 내용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하는 과정에서 자주 발견된다. 예컨대, 다음에 제시된 (18)의 경우 첫 번째 문장에서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는 네 번째 문장이 질문과 떨어져 있어 긴밀성이 약해졌다. 질문 바로 뒤에 오는 세 번째 문장은 스크린 쿼터제의 시행 목적과 시행 국가에 대한 서술이므로 네 번째 정의 문장 뒤에 배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18) 요즘 한국영화의 성장과 더불어 스크린 쿼터제에 대한 존재 여부를 놓고 논란이 많다. 스크린 쿼터제란 무엇인가? 그것은 해외영화에 대한 자국 영화계의 침식을 막고 자국영화를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럽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의 모든 극장이 1년 중 106~146일 동안 의무적으로 우리영화를 상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스크린 쿼터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거를 비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스크린 쿼터제의 부당성을 되짚어 보고자 한다.

### 2.3. 문단의 강조성과 관련된 문제

문단의 강조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화제가 화제문의 형태로 제시되고, 이에 대한 뒷받침이 충분하고도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들이 작성한 문단 중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례들을 그 유형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2.3.1. 화제가 불분명한 경우

문단의 강조성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들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주어진 문단의 화제가 무엇인지 분명치 않은 경우이다. 이는 필자가 한 문단 속에서 무엇에 대해 말할 것인지에 대해 분명하게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글을 집필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의 (19)~(20)을 보자.

(19) 운동선수의 군 면제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점은 군 면제가 보상으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사람들은 군복무를 기피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게 된다. 최근 연예인들의 병역비리도 이러한 인식에서 비롯된 문제이다. 하지만 군복무는 국민으로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또한 군복무를 마친 사람들은 군 생활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경험 중의 하나였다고 말한다. 이처럼 군복무는 피해야 할 대상도 아니고, 금메달에 대한 보상일 수도 없다.

(20) 둘째로 호주 승계에서의 남녀차별이다. ‘아들-딸-배우자-어머니-며느리’라는 승계구조에서 알 수 있듯이 호주는 남자들만의 고유물로 전락한다. 3세의 손자가 80세 할머니의 호주가 되는 기막힌 현실 속에서 ‘호주’라는 이름표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다만 누가 집안의 어른인지 알 수 없는 호주제도가 잘못된 것이다.

(19)의 경우 화제가 불분명하다. 앞부분에서는 운동선수들의 군 면제가 가지는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으나, ‘또한’ 이후부터는 국민의 의무인 군복무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혼란은 첫 문장과 그 이후 문장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지 못하고, ‘군 면제를 보상으로 여긴다’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0)의 경우에는 화제문이 첫 번째 문장이라고 생각되는데, 나머지 문장들이 호주 승계에서 나타나는 남녀 차별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우선 두 번째 문장에서 승계 서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부족하고, 세 번째 문장에서는 무엇을 지적하고자 하는지가 불분명하며, 네 번째 문장에서는 화제문과 관련이 없는 서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독자는 이 문단에서 필자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 2.3.2. 화제에 대한 관심을 분산시키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강조성이 문제되는 두 번째 유형은 문단 속에 화제에 대한 관심을 분산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화제에 대한 강조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이다. 다음의 문단 (21)의 첫 문장을 보면 학교 폭력 문제가 일반적인 사회 폭력 문제보다 더 심각하게 여겨지는 이유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필자는 이에 대한 언급을 미루고, 또 다른 화제를 꺼내서 효율적인 문단 전개를 막고 있다.

(21) 그렇다면 학교 폭력문제가 일반적인 사회 폭력 문제보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더 피부에 와 닿는 문제인 까닭은 무엇일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학교 폭력 문제가 더 절실한지 사실 여부이다. 내 경험에 비추어 보면 학교 폭력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은 접할 수 있었지만 사회폭력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은 별로 접해보지 못했다. 학교 폭력이 빈도와 강도 면에서 심각한 이유는 전 문단에서 말했듯이 폭력을 일으키는 직접적 원인이 바로 감정에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거의 10대이며 그 시기의 행동은 이성보다는 감정에 많이 지배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폭력사건으로 연행된 학생들의 대다수가 폭행을 한 이유로 단지 채수 없어서, 혹은 마음에 안 들어서 등의 그들 자신의 감정이 동기였다고 자백했다. 또 도덕적 판단력이 부족한 경우에 자기감정 때문에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음을 생각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그 시기는 대중매체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시기인데 우리 사회의 무수히 많은 폭력물이 인기를 끄는 것을 보면 그 영향도 크다고 할 수 있다.

(22) 세 번째로, 평균화가 하향 평균화라는 역효과를 초래하여, 경쟁력이 저하된다고 보는데, 여기서 나는 진정한 경쟁이라는 것의 의미를 되짚어

보고 싶다. 학생들은 오로지 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경쟁만을 하여 고등학교를 대학을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만 삼아야 할까? 고교등급제를 시행할 때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단지 이러한 대학입학을 위한 기계적인 학습에만 국한된 경쟁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경쟁은 학생들을 치열한 입시기계로 만들어 줄 수 있으나 진정한 ‘인간’은 결코 만들어내지 못한다. 학교의 교육은 입시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올바른 인격을 가진 인간을 양성하는 데에 더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대학마다 시험 점수만이 아닌 인격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 방식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문단 (22)에서도 첫 문장을 보면, 고교 평준화가 하향 평준화를 초래하여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반박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두 번째 문장에서 화제와는 다소 동떨어진 ‘진정한 경쟁의 의미’를 꼬집어냄으로써 화제를 분산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후 문장들에서도 진정한 경쟁의 의미와 학교 교육이 추구해야 할 바를 논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첫 문장에서 제시한 반론에 대한 처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2.3.3. 뒷받침 문장이 화제문을 뒷받침하기에 적절치 못한 경우

다음으로, 화제는 분명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부적절한 경우가 있다. 뒷받침 문장들이 화제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화제를 충분히 강조하여 설득력 있게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여기 해당된다. 다음의 (23)~(24)가 이를 보여준다.

(23) 마지막으로 패스트푸드가 끼치는 정신적·심리적 악영향도 문제가 된다. 이것은 특히 아이들에게 심각한 것인데, 가정에서의 식사 시간을 줄이게 되어 자기중심적이며 기다릴 줄 아는 자제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다. 어른들에게도, 즐거워야 할 식사시간이 시간에 쫓기는 시간으로 바뀐다는 점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

(24) 다음으로, 반대론자들은 현실문제가 시급함을 상기 시켜서 과거사 문제를 잠재우려 한다. 그런데 이 현실문제들은 주로 민생과 안보문제들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여태껏 민생과 안보를 위해 노력했는가? 그렇지 않다. 일제와 독재정권에 기생하여 성장한 기득권층이 민생을 생각한 적은 없다. 덧붙여 자신들의 안위만을 지켜온 그들이 안보를 이야기할 역

시 과거사 청산과 관련성이 적다.

위의 (23)에서 밑줄 친 부분은 패스트푸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첫 문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패스트푸드에 의한 정신적·심리적 악영향(이 문단의 화제)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우선 아이들이 가정에서 식사할 기회가 줄어드는 것과 아이들이 자기중심적이고 인내심이 적어지는 것 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어른들이 패스트푸드를 먹으면서 시간에 쫓기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문단의 경우 뒷받침 내용의 설득력이 부족하여 논거를 뒷받침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24)의 경우에는 과거사 청산을 반대하는 측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과거사 청산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 중 세 번째 문장에서 필자는 반대론자들이 과거사 청산보다는 현재 당면한 ‘민생과 안보문제’가 더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반박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반박은 논리적이지 않고 다분히 인신공격적이며 감정에 치우쳐 있다. 민생과 안보를 위해 노력한 적이 없다고 해서, 현재나 미래에 민생과 안보를 부르짖지 말라는 법은 없으므로 과거의 행동만을 가지고 현재의 주장을 비판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이런 논박 대신 과거사 청산이 ‘민생과 안보문제’ 해결에 장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음의 (25), (26)도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난 논거를 가지고 주장을 뒷받침함으로써 강조성을 깨뜨리고 있다. (25)의 경우 스크린 쿼터제를 폐지해도 외국 영화와의 승부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 대신 ‘온실 속의 화초가 들판의 잡초보다 강하다’는 비유만을 제시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 이러한 비유만으로는 한국 영화가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뒷받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26)에서는 법적 차원에서 호주제의 문제점을 지적해야 하는데 밑줄 친 부분을 보면 언어생활 속에 나타난 가부장제 의식을 비판하고 있다. 이는 호주제 속에 포함된 남성 우월주의를 비판하는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화제문을 적절하게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호주제의 법적 내용과 시행의 측면에 나타난 남성 우월주의적 측면을 다각도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25) 스크린 쿼터제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제기하는 다른 논거로는 스크린 쿼터제를 유지할 경우 할리우드 영화사들의 막강한 배급력 때문에 국내 영화는 승부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온실 속의 화초

가 들판의 잡초보다 강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마찬가지로 영화 산업도 스크린 쿼터제라는 형식적인 제도에 의존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이를 할리우드의 영화 자본을 유치하여 국내 영화 산업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스크린 쿼터제 폐지로 국내 시장을 모두 미국 영화에 빼앗길 것이라는 피해 의식에 빠져 있기 보다는 이를 한국영화 발전의 계기로 삼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26) 셋째로 혼인 시 여자가 남자의 가에 입적을 하는 점에서 호주제는 남성 우월주의를 극명히 보여준다. 흔히 '시집간다', '장가든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는 여자는 남의 집으로 시집가서 남편에게 속에 있다는 뿌리깊은 가부장제 의식을 보여준다. 이러한 남녀 차별을 부추기는 제도 속에서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인식은 더 강해지게 된다.

### 3. 지도 방안

2장에서 우리는 문단 작성의 원칙으로 널리 알려진 '통일성, 긴밀성, 강조성'의 원칙을 가지고, 논증문의 문단에 나타난 작문법상의 문제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의 결과는 현재 대학생 작문 실태의 심각성을 반영해 준다고 생각한다. '문단'은 글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가 곧 글 전체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단 작성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 제시할 지도 방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문단 작성의 원리와 방법을 전달하는 이론적 측면의 지도와, 문단 쓰기 실습 지도가 그것이다. 전자에 대해서는 통일성, 긴밀성, 강조성을 갖춘 문단을 쓰도록 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전달해야 할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후자에 대해서는 Oshima & Hogue(1999)의 '문단 개요 작성하기' 방법을 큰 틀로 하여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단 쓰기 지도 방안을 '계획 단계-집필 단계-평가 단계'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sup>9)</sup>

---

9) 기존에 문단 중심 작문 교육 방안을 제시한 한미정(1997:50-67)의 경우 지도 단계를 '주제 설정-제재 선정-개요 작성-집필-퇴고'로 나누고 있다. 앞의 세 단계는 본고의 '계획 단계'와 일치한다. 본고에서는 '퇴고' 단계를 '집필'에 포함시키고, 대신 동료와 교수의 평가 단계를 지도 방안 속에 포함시켰다.

### 3.1. 문단 작성 방법 지도

이 단계에서는 문단 작성 원리와 방법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문단의 개념, 문단의 구성 요소, 문단 전개 원리에 대해서는 2장에서 이미 언급하였으므로, 여기서는 통일성, 긴밀성, 강조성을 갖추기 위한 세부 조건, 모범 사례 읽히기, 연습문제 활용 방안에 대해 소개하기로 하겠다.

#### 3.1.1. 통일성, 긴밀성, 강조성을 갖추기 위한 조건

우선 통일성과 강조성을 위해서는 화제문과 뒷받침 문장의 작성 요령을 지도한다. 화제문의 경우 1) 완전한 문장으로 2) 화제와 그에 대한 필자의 중심 생각을 모두 포함하여, 3) 문단 내에서 가장 일반적인 서술이 되도록 작성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뒷받침 문장은 화제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화제문을 읽고 필자가 가질 수 있는 기대를 충족시키거나, 화제문을 읽음으로써 독자가 가지게 될 의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작성하도록 유도한다. 만일 화제문이 ‘패스트푸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영양의 불균형이다.’이라면 어떤 영양소가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되며, 왜 문제가 되는지를 충분히 설명하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뒷받침 문장들이 모두 중심 생각과 관련이 있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이어야 하며, 중심 생각을 충분히 설명하고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긴밀성을 위해서는 뒷받침 문장들의 논리적 배열과 이행 어구 사용 방법을 지도해야 한다. 논리적 배열이란 어떤 화제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에 적절한 순서를 말한다. 이러한 배열 방식은 화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화제가 ‘서양 달력의 변천 과정’이라면 시간적 순서에 따라 문장을 배열해야 할 것이고, 화제가 ‘동남아 지진 해일의 피해 현황(2004년)’이라면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와 같이 논리적 범주를 나누어 문장을 배열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리고 ‘기숙사 생활과 원룸 생활’이 화제라면 비교·대조의 방식이 적절할 것이다. 끝으로 ‘환율 하락의 원인’이 화제라면 ‘원인-결과, 결과-원인’ 배열 순서가 적절할 것이다. 한편, 이행 어구는 앞서 언급한 배열 순서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선택하도록 지도한다. 예컨대, ‘비교·대조의 방식’으로 문단이 구성된다면 ‘반면, 이와는 달리, ~에 비해’ 등의 어구를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원인-결과의 방식’으로 문단이 구성된다면 ‘~때문에, ~로 말미암아, ~의 이유는, 그 결과’ 등의 어구를 활용하도록 유도한다.

### 3.1.2. 모범 사례 읽히기

위에서 서술한 원리와 방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모범 문단들을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이다.<sup>10)</sup>

궁궐의 돌길은 살아 있는 왕의 권위를 상징한다. 중문에서 정전으로 이어지는 돌길은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의 모든 궁궐에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궁궐의 돌길은 좌우로 정일품, 정이품 같은 품직을 새겨 넣어 신하를 상징하는 품석(品石)을 거느리며 정전까지 곧게 쭉 뻗어 있다. 이러한 돌길은 세 겹으로 이루어지는데 중앙부가 양측부보다는 높이 솟아 이곳은 왕만 지나갈 수 있었다. 이처럼 궁궐의 돌길은 직선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왕의 여정이 막힘 없이 순탄하기를 상징적으로 기원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모든 길은 로마로’라는 서양의 속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곧은 길은 탄탄대로의 이미지를 표현하면서 궁극적으로 성공, 권위, 안정을 상징한다. 궁궐의 정적이 감도는 큰마당은 세상을 상징하며 이 속을 일직선으로 가르고 지나가는 검은 돌길은 만조백관을 거느리며 세상의 질서를 통치하던 왕의 권위를 상징한다.

위 문단은 통일성과 긴밀성 면에서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뒷받침 문장들은 화제문(굵은 글씨)을 보고 독자가 가질 수 있는 궁금증, 다시 말해 궁궐의 돌길이 어떻게 왕의 권위를 상징하고 있는지에 대해 ‘직선의 이미지’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그리고 핵심 단어인 ‘궁궐, 돌길, 왕, 직선’ 등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긴밀성을 꾀하고 있다. 끝으로 전체 내용을 정리하여 밑줄 친 맺음 문장을 작성함으로써 독자에게 다시 한번 문단의 전체 내용을 일깨워준다. 이처럼 모범적으로 작성된 문단을 반복하여 읽힌다면, 문단의 구성 요소와 전개 원리에 대한 지도가 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10) 예시 문단은 임석재(1999:191-193)에서 발췌한 것으로, 굵은 글씨와 밑줄은 필자가 임의로 표시한 것임을 밝혀 둔다.

### 3.1.3. 연습문제 활용

원리와 방법을 가르친 후에는 적절한 연습문제를 활용하여 학습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한다. 문단 쓰기와 관련하여 강의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연습문제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가. 주어진 화제문에 뒷받침 문장을 덧붙여 한 문단 완성하기
- 나. 뒷받침 문장들이 주어진 상태에서 화제문 작성하기
- 다. 통일성과 긴밀성, 강조성의 관점에서 주어진 문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적절하게 고쳐 보기<sup>11)</sup>
- 라. 문장 배열 순서 바로잡기
- 마. 문단 나누기

이 가운데 ‘가’ 유형의 문제를 예로 들어 보이면 다음과 같다.

※ 다음과 같은 화제문에 적절한 뒷받침 문장을 덧붙여 하나의 문단을 완성하라.

<문1> 새롭게 바뀐 버스 노선 제도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문2> 요즘 유행하는 ‘웰빙’ 풍조는 과소비를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

학생의 입장에서 <문1>에 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버스 노선 제도의 두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되, 각 문제점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문장들을 보충하여 뒷받침 문장을 작성하면 된다. 그리고 <문2>의 경우 ‘웰빙’과 관련하여 과소비를 부추기는 사례들을 모아서 논리적 순서에 따라 배열하면 된다. 이처럼 화제문에 따라 뒷받침 문장의 내용과 순서를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지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문제를 활용하도록 한다.

11) 송기중(1999)에 따르면 타인의 글을 비판적으로 읽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도 글쓰기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 3.2. 문단 작성 실습 지도

3.1.의 세 가지 활동을 통해 문단 작성 방법을 완전히 익힌 후에는 문단 쓰기 실습에 들어가게 된다. 실제 문단 쓰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세 단계를 고려할 수 있다.

#### 3.2.1. 계획 단계: 문단 개요 작성하기(paragraph outlining)

글을 작성하기 전에 주제, 주제문, 개요를 작성하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문단을 작성하기 전에 문단 개요를 작성하는 것에는 그다지 익숙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2.1.~2.3.에서 살펴본 다양한 문단 작성의 문제점들은 문단 개요를 작성함으로써 많은 부분 해결할 수 있다. Oshima & Hogue(1999:35)에서는 문단 개요를 작성함으로써 얻는 이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sup>12)</sup> 첫째, 화제와 관련이 없는 생각은 제외시키고, 핵심 사항은 빠뜨리지 않으며, 문장들을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배열할 수 있다. 둘째, 문단을 좀 더 빨리 작성할 수 있다. 개요를 작성하고 나면 무엇에 대해 써야 할지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만큼 문단 작성이 쉬워진다. 셋째, 제재와 구성에 신경 쓰지 않고, '문법'에 집중할 수 있으므로 문법적인 측면이 개선된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하면, 문단 개요를 작성하는 것은 '구성, 집필 속도, 문법' 면에서 유익하다고 할 수 있다.

문단 개요는 2장의 도입부에서 제시한 문단 구성 요소들로 구성된다. 우선 그 문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심 생각을 화제문으로 작성한다. 다음으로, 이 화제문을 뒷받침하는 문장(또는 단어)들을 일관된 항목 번호를 사용하여 차례대로 배열한다. 이 과정은 글의 주제를 선정한 다음, 제재를 선정하여 배열하는 것과 유사하다. 끝으로 맺음 문장을 넣는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작성된 문단 개요의 예를 한 가지 보이면 다음과 같다.

---

12) 김영옥(1996:24)에서도 문단 개요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학생들이 뒷받침 문장을 적절하게 작성하지 못하는 것은 개요 작성 시 화제문의 내용만 염두에 두고,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에 대해 미리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는 문단별 개요가 글 개요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화제문: **최근 한국 영화 산업의 놀랄 만한 성장 뒤에는 영화 외적인 측면의 도움이 있었다.**

1. 스크린 쿼터제
2. 특수 효과 기술의 발전
3. 전반적인 문화 산업의 활성화

맺음 문장: 이처럼 영화 외적 요인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그 동안 한국 영화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위의 개요는 ‘한국 영화 산업 성장에 대한 영화 외적 기여’를 화제로 작성된 것이다. 화제문은 굵은 글씨로 되어 있고 맺음 문장에는 밑줄이 그어져 있으며 뒷받침 항목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번호가 매겨져 있다. 뒷받침 내용이 늘어날 경우 항목번호를 추가하거나, 각 뒷받침 항목 아래 하위 항목을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문단 개요는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지도할 수 있다. 우선, 완성된 ‘글’을 염두에 두지 않은 상태에서 문단 하나만 놓고 연습할 수 있다. 이 경우 먼저 화제를 선정한 다음, 앞에서 제시한 문단의 구성 요소를 갖추어 개요를 작성하면 된다. 화제와 화제를 뒷받침하는 항목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과 같은 전략이 활용될 수 있다.<sup>13)</sup> 다음으로, 완성된 ‘글’을 염두에 두고, 문단 개요를 작성할 수 있다. 전체 글 개요 중 한 항목을 문단으로 작성하기 위하여 문단 개요를 작성하는 것이다. 이 경우, 화제는 이미 결정된 상태이므로, 화제문을 작성하고 뒷받침 항목과 맺음 문장을 작성하면 된다.

문단 개요를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첫째, 뒷받침 항목이 화제와 관련된 것들로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둘째, 뒷받침 항목의 배열이 화제문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예컨대, 화제가 어떤 사건의 과정이나 절차, 역사적 배경 등이라면 시간적 순서에 따라 화제를 배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화제가 추상적이고 복잡한 것이라면 일정한 기준에 따라 몇 개의 부분으로

13)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의 하위전략인 목록 작성하기(listing), 자유연상 쓰기(freewriting), 다발 짓기(clustering) 등에 대해서는 Oshima & Hogue(1999:4-8), 캐슬런 E. 설리번 지음/최현섭·위호정 옮김(2000:23-40), 최현섭 외(2000) 등을 참조할 것.

나누어 각 부분을 차례차례 배열해야 할 것이다. 셋째, 뒷받침 항목이 화제문을 뒷받침하기에 적절하고 충분한지 검토해야 한다. 화제문과 거리가 먼 예나, 불충분한 설명은 문단의 강조성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 3.2.2. 집필 단계

문단 개요가 작성되면 각 항목들을 정확한 문장으로 옮겨 가며 문단을 집필해야 한다. 개요 작성 단계에서 통일성과 강조성 여부를 어느 정도 점검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집필 단계에서는 문장 간의 연결을 긴밀하게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다.

실제 문단 집필에 있어 긴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Oshima & Hogue, 1999:40-55). 첫째, 핵심적인 어구나 단어를 반복하여 사용한다. 둘째,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대명사(지시어)를 사용한다. 셋째, 적절한 이행 어구를 사용한다. 이 가운데 특히 이행 어구의 사용이 매우 중요한데, 이는 독자들이 글을 읽어 나가는 동안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필자의 생각을 따라가야 하는지 안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반면’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전까지와는 다른 생각이 제시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으며, ‘게다가’라는 말이 나오면 앞서 나온 것과 비슷하거나 더 심화된 내용이 나오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이행 어구 사용은 필자에게나 독자에게나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통일성, 강조성, 긴밀성과 함께 실제 집필에서 강조되어야 할 것은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작성한 글을 보면 ‘주·술 호응이 안 된 문장, 주어와 같은 주성분이 누락된 문장, 부적절한 단어가 선택된 문장, 국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부자연스러운 표현이 사용된 문장’들이 자주 나타난다. 따라서 집필 이전에 문장의 오류 유형과 개선 방안 등을 숙지하여 이러한 오류를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3.2.3. 평가 단계

이상의 절차를 거쳐 완성된 문단에 대해서는 첨삭 교정을 포함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학생 자신이 취약한 부분을 인지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데, 이 때 아래와 같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가. 문단의 구성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으며, 그 배열이 적절하게 되어 있는가? 화제에서 벗어난 문장은 없는가?
- 나. 분명한 화제가 있는가? 화제문에 중심 생각이 포함되어 있는가?
- 다. 중심 생각이 분명한가? 필자가 좀 더 보충해야 할 사항이 있는가?
- 라. 맺음 문장이 적절하게 작성되었는가?
- 마. 모든 문장이 화제문을 뒷받침하고 있는가?
- 바. 문장들의 연결이 자연스러운가? 핵심 어구, 대명사, 지시어, 이행 어구 등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가?
- 사. 화제문에 대한 뒷받침이 충분하고도 적절하게 이루어져 있는가?
- 아. 비문이 있는가? 비문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가~라’ 항목은 문단의 구성에 관한 것이고, ‘마~사’ 항목은 문단의 통일성, 긴밀성, 강조성 여부를 묻는 것이다. 그리고 ‘아’ 항목은 문장 표현의 적절성과 정확성을 묻기 위한 것이다.

위의 체크리스트는 교수-학생 간 평가는 물론, 학생-학생 간 평가에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학생 간 상호 평가를 통해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다. 동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문제점도 발견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자신의 글쓰기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4. 요약과 정리

본고에서는 대학생의 작문 능력 실태를 파악하고, 여기서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생들이 작성한 논증문을 문단 차원에서 분석해 보고, 문단 작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도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2장에서는 논증문의 일반단락을 대상으로 문단 작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례들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본고에서 분석 기준으로 삼은 문단 작성의 원칙은 통일성, 긴밀성, 강조성인데, 이러한 원칙을 위배한 사례들은 그 요인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성이 문제된 경우로는 1) 화제문과 관련이 없는 뒷받침 문장이 있는 경우 2) 화제문이 뒷받침 문장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3) 한 문단 속에 둘 이상의 화제가 들어 있는 경우 4) 맺음 문장이 잘못 작성된 경우 등이 있다. 다음으로, 긴밀성이 문제되는 경우로는 1) 이행 어구와 지시어가 문제되는 경우 2) 문장 배열이 부적절한 경우가 있고, 강조성이 문제되는 경우로는 1) 화제가 불분명한 경우, 2) 화제에 대한 관심을 분산시키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3) 뒷받침 문

장이 화제문을 뒷받침하기에 부적절한 경우 등이 있다.

3장에서는 문단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론적 측면의 지도 방안과, 문단 쓰기 실습 지도 방안을 제시하였다. 전자에 대해서는 통일성과 긴밀성, 강조성을 갖추기 위한 세부 조건과, 모범 사례 읽히기, 연습문제 활용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후자에 대해서는 Oshima & Hogue (1999)에 소개된 '문단 개요 작성하기'를 활용하여 문단 쓰기의 지도 과정을 '계획하기-집필하기-평가하기' 단계로 나눈 다음, 각 단계별 지도 방안을 제시하였다. 계획 단계에서는 문단 개요 작성 방법을 제시하였고, 집필하기 단계에서는 통일성, 긴밀성을 유지하면서 정확한 문장을 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지도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평가 단계에서는 체크리스트 사례를 제시하고, '교수-학생', '학생-학생' 간 평가를 통해 문제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논의를 마무리 지으면서 본고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거나, 미진하게 다룬 부분을 앞으로의 과제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고에서는 문단 작성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지적하는 데 주력하다 보니, 지도 방안 부분이 다소 미흡하였다. 지도의 원칙과 방향은 제시하였지만 다양한 문단 개요 사례와 문단 작성 사례로 구성된 강의 모형을 제시하지 못했다. 앞으로 이런 점들을 보완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도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른 유형의 글에 대해서도 유사한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대학생의 문단 작성 실태를 포괄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글 전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차원으로까지 논의를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해 나간다면 앞으로 대학생의 글쓰기 교육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으리라고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김동언. (1992). 대학생 문장의 비문에 대하여. *강남어문*, 7, 25-44.
- 김영옥. (1996). 오류 분석과 교정 중심의 글쓰기 교육. *건강논총*, 4, 9-32.
- 김주필. (1990). 대학생의 작문 실태와 작문 교육의 방향. *국어교육*, 71·72, 327-347.
- 서정수. (1996). *개정판 작문의 이론과 방법-단락과 논술법을 중심으로*(초판: 1985). 새문사.
- 송기중. (1999). 글의 분석과 평가-대학 작문교육의 효과적 방법을 개발하

- 기 위한 시론. *선청어문*, 27, 135-159.
- 원진숙. (1995a). 논술 텍스트의 구조적 특성 연구. *한남어문학*, 20, 167-195.
- 원진숙. (1995b). 논술 교육론. 박이정.
- 원진숙. (1999). 대학생들의 글쓰기 실태와 지도 방안. *새국어생활*, 9(4), 29-44.
- 원진숙. (2003). 국민의 글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국어 교육 방법론. *국민의 글쓰기 능력 향상 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 회의 자료집* (국립국어 연구원), 31-45.
- 이익섭. (1999). 글쓰기 능력의 중요성. *새국어생활*, 9(4), 5-16.
- 임석재. (1999). *우리 옛 건축과 서양 건축의 만남*, 대원사.
- 임재춘. (2003). *한국의 이공계는 글쓰기가 두렵다*. 마이넨.
- 정달영. (1997). *국어 단락 이론과 작문 교육*. 집문당.
- 최현섭 외. (2000). *삶과 글쓰기*. 삼영사.
- 캐슬린E. 설리번 지음/최현섭·위호정 옮김. (2000). *작문, 문단쓰기로 익히기*. 삼영사.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연구실 편. (1985). *현대 국어 문장의 실태분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한미정. (1997). 문단 중심의 작문 교육 방안 연구.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철구. (1999). 한국인의 글쓰기에 나타나는 단어와 문장의 오류. *새국어생활*, 9(4), 45-64.
- Oshima, Alice & Ann Hogue. (1999). *Writing Academic English* (3rd ed.). Longman.

김옥화

151-742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56-1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전화: 010-9802-0097

이메일: [phoneme@snu.ac.kr](mailto:phoneme@snu.ac.kr)

Received: 30 Dec, 2004

Revised: 6 Mar, 2005

Accepted: 10 Mar, 2005